

株式 추석전에 팔까 말까

최근 7년 연휴후 상승세 타면 상승장 지속 올해는 美 금리인하 폭 결정 여부에 달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긴 추석연휴 때 주식을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팔고 가야 하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신용경색 우려로 국내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흘이나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국내 시장이 긴 휴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증권시장은 추석연휴와 관계없이 운영되면서 말 그대로 그 기간 글로벌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이번 추석연휴에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팔고 갈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추석효과, “추석연휴 후 상승세 타면 ‘축상’=17일 증권신문거래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추석 후 코스피지수 흐름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추석 연휴 전날 대비 연휴

요일부터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 그 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반대로 5거래일 동안 하락하면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 추석연휴 전날 지수는 653.68이었는데 추석연휴 다음날부터 5일 후 지수가 606.08을 기록해 7.28%가 하락하자 10일 후에는 추석연휴 전날에 비해 8.32%가 하락한 599.31을 기록했으며, 20일 후에는 18.20%가 하락한 534.71이었다. 또 2002년에는 5일 후 5.74%가 하락한 뒤 10일 후에는 10.90%가 떨어졌으며, 20일 후에는 낙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7.31% 하락한

상태였으며, 2003년에도 연휴 다음날을 기준으로 5일 후에는 추석 연휴 직전 일에 비해 2.50% 하락한 뒤 10일 후에는 9.13%나 내려앉았다.

이에 비해 2001년에는 5일 후 4.96% 상승세를 타던 뒤 10일 뒤에는 10.13%나 오르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2005년에도 5일 후 2.75% 오른 뒤 10일 후엔 5.85% 상승했다.

이밖에 2004년엔 5일 후 6.65% 올랐으나 10일 후엔 2.89% 상승세로 상승폭이 둔화 됐고 지난해에는 5일 후 0.25% 하락했으나 10일 후엔 0.91% 상승세로 반전되기도 했다.

◇올해는 미국 금리인하와 시장반응이 관건=

우리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추석연휴 이후 지수를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이벤트는 18일(현지시간)에 발표되는 미국 FOMC의 금리인하 결정 여부와 그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에 19일부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의 금리인하 폭이 크고, 그에 따른 글로벌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국내 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인 만큼 주식을 들고가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 폭이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팔고 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추석연휴 미국에서는 8월 내구재 주문지표, 9월 소비자신뢰지수, 8월 기준주택판매지표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FOMC 금리결정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연휴기간 주식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 철도의 날... 개통 108년 총 연장 3,380km 구축

국내에 철도가 들어온 지 108년 만에 철도 총 연장이 3천 380km를 넘어섰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제물포-노량진(33km) 구간 개통 이후 올해로 108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철도는 3천81km의 철도 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선화율은 40%, 전철화율은 53%에 달한다.

국내 철도 연장은 1995년 3천101km를 기록한 이래 2003년 3천140km, 2004년 3천374km, 2005년 3천392km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철도사고 발생 건수는 2004년 616건에서 지난해 314건으로 49%가 줄었으며, 지난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열차 시험 운행으로 남북한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0년 완공을 위해 올해 7천890억원을 투입하며,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오송-광주, 2017년 오송-목포간 완공을 위해 내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9년 착공할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최고 시속 400km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을 지난 7월에 착수했으며, 한국형 틸팅 열차 실용화를 위한 시운전도 지난 4월에 실시했다. /연합뉴스

기업들 올 하반기 인력 채용 국내선 줄이고 해외선 늘려

올 하반기 기업들의 해외인력 채용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인크루트가 465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해외인력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17.4%가 ‘해외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 중 29.6%는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69.1%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기업은 1.2%에 불과했다.

해외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국내인력 채용계획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는 기업이 24.7%로, ‘지난해보다 늘어났다’(19.8%)는 곳보다 4.9%포인트 높아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은 해외채용 계획과는 대조를 이뤘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채용을 꾸준히 해외 인력 풀어놓는 것 보다는 국내채용과 달리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시장 공략, 현지화 전략 등을 위해 해외인력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2금융권 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

금융감독 당국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악화에 대비해 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한 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악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국내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PF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은 집중 관리하고 보증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한 뒤 PF 대출을 취급하는 한편 기존 대출의 사후 관리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동화약품 창립 110주년 기념

**“10년내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
동화약품 110돌 기념식서 밝혀**

동화약품은 지난 15일 안양공장 대강당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식’을 갖고 향후 10년 내에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화약품 윤길준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약인 ‘DW224a’와 ‘DW1350’에 대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두 제품을 세계적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이들 제품의 로열티 수입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해 10년 내에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약품은 퀴놀론계 항균제 ‘DW224a’와 골다공증 치료제 ‘DW1350’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DW224a’는 지난 6월 미국바이오회사와 5천650만달러(약 525억원)의 기술 수출료를 조건으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DW1350’도 미국 P&G 계열 제약사에 5억1천100만달러(4천700억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계약을 맺는 등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8년형 쏘렌토 타고 자연탐사 기아자동차(주)와 환경실천연합회 쏘렌토 동호회원들이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안에서 ‘자연습지 탐사 자원 차량 시승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기아차는 2008년형 쏘렌토 출시를 기념해 시승과 함께 환경체험행사를 가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한국경제 내년 5%대 성장”

정부·삼성경제연구원... 내수·수출 호조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 한국 경제가 5.0%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미국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내수와 수출 양쪽에 바탕을 둔 균형잡힌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성장률은 올해보다 상승한 5.0%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내년 내수는 민간소비가 4.5%, 건설투자가 3.9% 성장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출도 연평균 11.9% 늘어나는 등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균형있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그러나 내년 경상수지는 29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 지난 10년간 지속된 흑자구조를 마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수출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증가세는 확대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7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7월 이후 미국 비자가 면제될 경우

하반기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이 3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관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설기자포럼 초청 강연에서 “대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올해에는 애초 예상했던 4% 중반의 성장세가 달성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7일 한국이 올해 애초 전망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높은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月 52,000,000원 **상장 100대기업 임원 평균 급여**
삼성전자 2억3,000만원 최고

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비교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이(사) 1인당 월평균급여는 5천20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100대기업 전체 직원 평균월급 419만원의 12.4배에 달하는 것이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등기이사 1인당 월평균 급여가 2억3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건설이 2억1천700만원으로 2억원대를 기록했으며 한화 1억7천200만원, SK텔레콤 1억6천만원, 국민은행 1억5천500만원, 하나금융지주 1억4천900만원, KT 1억4천만원, 삼성물산 1억3천800만원, SK 1억2천900만원, LG카드 1억2천500만원, 현대차 1억2천400만원, LG 1억

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월급여 평균치인 5천200만원 넘는 기업은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현대상선, 신세계, 현대제철, 기아차, 삼성SDI,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LS산전, LG전자, 대한항공, 현대엘리베이터, LS전선 등을 포함해 모두 31개사였다.

100대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도 급여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상위 10개 기업의 지난 상반기 월평균 급여는 1억6천200만원에 달해 하위 10개기업 평균치 1천100만원의 14.7배에 달했다. 또 상위 50개기업의 임원 평균 월급은 8천만 원으로 하위 50개기업의 평균치 1천100만원의 7.3배였다. 특히 법정부관리 중 인 대한투원은 임원 월평균 급여가 600만원으로 가장 낮아 삼성전자의 39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상반기 임원 월급여	
상위 3개사	
삼성전자	2억3천300만원
GS건설	2억1천700만원
한화	1억7천200만원
하위 3개사	
대한통운	6백만원
한국전력	3백만원
강원랜드	9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등기이사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반기보고서에 제시된 1인당 급여를 6개월로 나눈 수치임

거래소 상장 100대 기업 등기이사들의 올해 상반기 월평균 급여가 5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증권신문거래소 유가증권시

美 오늘 금리 인하 관심집중

한국증시 ‘기대반 우려반’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 여부에 국내 증시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FOMC에서 금리인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미국의 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 선진경 시장전략팀장은 “최근 미국증시가 하락폭의 50% 이상 회복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는지 아니냐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근 연구원은 “이미 금융시장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자산가격을 결정해 놓고 있어 실제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

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난 7월 말 이후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대한 응급처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며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주식시장의 저점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매개로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리츠증권 심재엽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글로벌 기업의 펀더멘털과 채권, 환율, 부동산, 원자재(원유)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사이클상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순 재료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승연 회장 (주)한화 대표 사임

한화건설 대표직도 물러날 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한화 대표직을 사임했고 한화건설 대표직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한화는 17일 김 회장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남영선, 양태진 2인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한화건설 대표직도 조만간 내놔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관급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내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다만 나머지 한화케미칼리아, 한화종합화학,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4개 계열사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화그룹은 밝혔다. 또 대한생명의 경우는 현재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올라있지 않아 문제는 없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는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법규에 의해 앞으로 당분간은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연합뉴스

“FTA 세계 교역 환경 바꾼다”

코트라 분석 보고서

“기업 대책 마련 시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FTA의 핵심적 성격도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쪽으로 바뀌는 등 전세계 교역환경이 바뀌고 있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코트라(KOTRA)가 지적했다.

코트라는 17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의 FTA전략을 비교한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에서 최근 이들 국가의 FTA가 배타적 이익확보, 협정 대상의 포괄화, 개방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FTA는 주로 상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목적이 강 조였으나 최근에는 신속한 무역 자유화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대두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EU는 작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외교·안보적 목적의 무역협정 체결 관행에서 벗어나 향후 최우선 목표를 ‘EU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삼고 한국, 인도, 러시아, 아세안(ASEAN) 등 국가와 FTA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아세안, 파키스탄과 FTA를 발효한 중국은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국가와도 협상을 진행중으로 내용면에서도 상품과 서비스협정 체결 관행에서 벗어난 등 적극적 개방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